

BLIZZARD
ENTERTAINMENT

#12



OVERWATCH™



옴닉의 반란

MICHAEL
CHU

GRAY
SHUKO



OVERWATCH™

옴닉의 반란

MICHAEL CHU 글

HYANG JUNG 번역

GRAY SHUKO 그림

JIHYE SOPHIA HONG 식자

CATE GARY 선임 편집자

ROBERT SIMPSON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

GRAY SHUKO 표지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이너

MICHAEL CHU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KAPLAN

ARNOLD TSANG

BILL PETRAS

SEAN COPELAND 세계관 자문

JUSTIN PARKER

DEREK DUKE 프로듀서

ADAM GERSHOWITZ

CAROLINE HERNÁNDEZ

BRIANNE LOFTIS

JOEL TRUBEL

RYAN THOMPSON

JEFFREY WONG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선싱 선임 매니저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OVERWATCH #12 ©2017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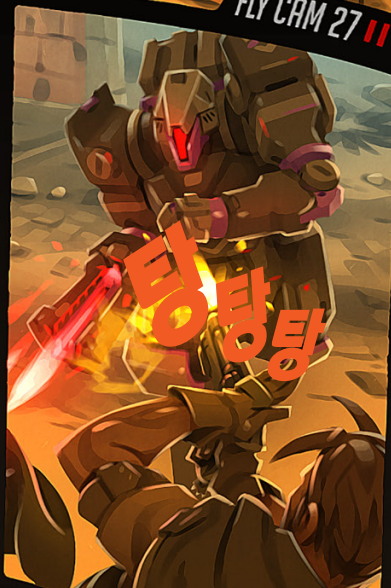


널 섹터가 몬다타와
난다 시장을 비롯하여
백여 명의 포로들을
발전소에 억류하고 있다.

사방이 벽으로
격리돼 있어.
들어가려면 문을
폭파해야 하지.

물론 그것도
대공 방어를
돌파한 다음의
얘기지만.

FLY CAM 27 //



FLY CAM 15 //

FLY CAM 27 //

스위스
오버워치 본부

또 연락하지.
상황이 조금 위험하다.

맥크리
교신 끝.

맥크리가
런던에서 뭘 하는
거죠, 가브리엘?



지상 상황을
조사 중인
모양이다.

가브리엘, 내 말은 맥크리뿐만
아니라 블랙위치 전원이 정직 중인
지금, 공식적으로 오버워치 활동이
없는 지역에서 맥크리가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휴가라도
갔나 보지.

런던으로요?
제시 맥-



게이브, 내게 또
말하지 않은 게 있나?
몰래 꾸미고 있는
일이 또 있냐고?

사령관님이
아셔야 할 건
없습니다.

그것참
설득력 있네요.



어쩌다가
넬 섹터에게
허를 찔렸는지
알아야겠다.

예전부터 옴닉
문제에는 맹점이
있었죠.

넬 섹터가 생긴 지는
좀 됐지만, 지금까지는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옴닉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고 말은 하지만...
극단주의 세력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예요,
가브리엘.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넬 섹터에는 지지 계층이 있어.
영국에서 사람들이 옴닉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옴닉들은 인간이 살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이 하기 싫어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권리도,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지."

"인간이라고 별수 있었겠어?
마그나 카르타는 천 년 전
쓰인 물건이라고."



모리스 사령관님,
다우닝 가에서 긴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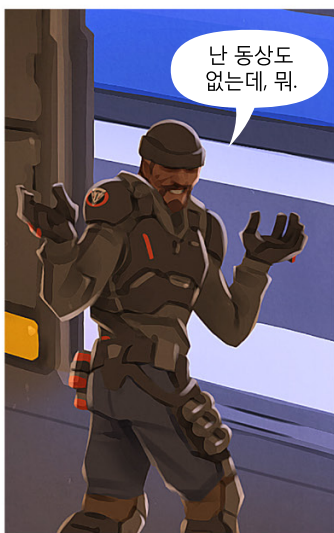
수상의 입장은 변함없다.
우리가 영국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걸
허가하지 않겠다는군.

농담이죠?



자기들끼리 사태를
수습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

역시
영웅답네요,
가브리엘.



난 동상도
없는데, 뭐.



사령관님,
페트라스 국장님
전화입니다.

잠시
기다리시
라고 해.

사무실에서
받을 테니까.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

당신
선택예요.



최근에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오버워치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일은 이제 피하고 싶군.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죠.

CAPTAIN
ANA AMARI



국장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잭.

이런 일 따위,
당장이라도
당신한테 맡겨
버릴 수 있다고.

당신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마음이
변했어.



오버워치 훈련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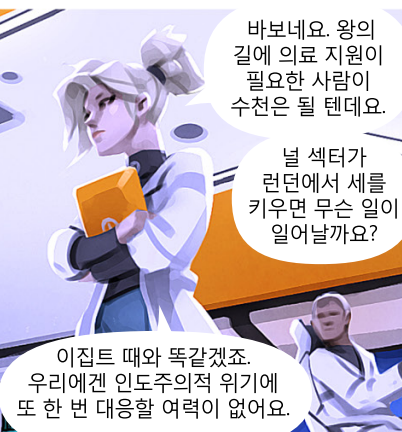


나쁘지 않군.



런던의 상황에 대한
새 소식은 없나요, 사령관님?

중진 않습니다.
수상이 우리 개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바보네요. 왕의
길에 의로 자원이
필요한 사람이
수천은 될 텐데요.

넌 섹터가
런던에서 세를
키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집트 때와 똑같겠쥬.
우리예겐 인도주의적 위기에
또 한 번 대응할 여력이 없어요.



이게 오버워치의 창립
목적이에요. 뒤로 물러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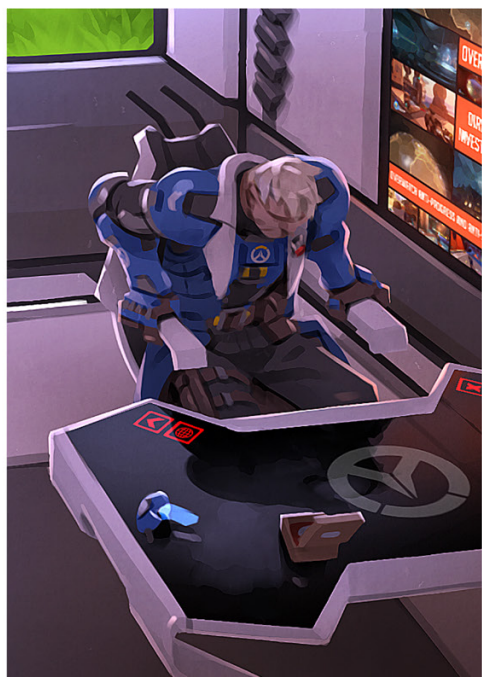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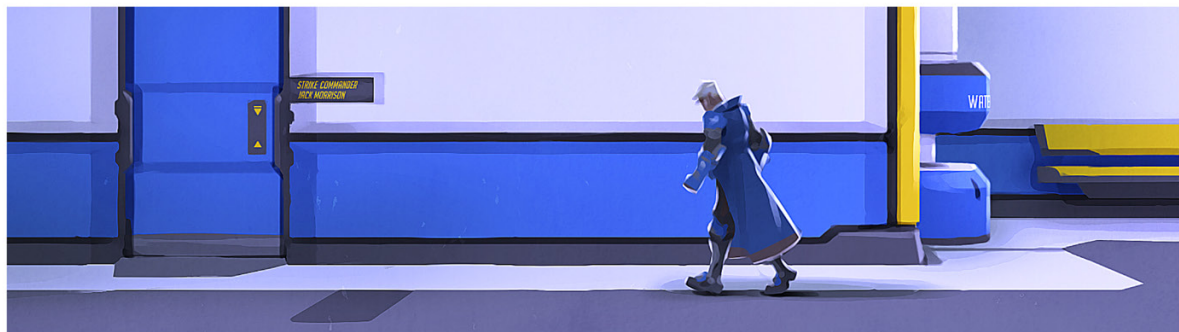
그 말씀에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속수무책입니다,
박사님.

그걸로는 부족해요,
잭.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을 거라고요.



저도 압니다,
치글러 박사님.

옥스톤에게
훈련이 끝나면
제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현장 임무 투입을 희망했다던데,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알다시피 내가 우려하는 바는-

사령관님... 저긴 런던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왜 아직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거죠?

손쓸 방법이 없다.

너희 나라의 현명하신 수상께서 우리가 필요없다고 한다더군.



하지만 저들에게엔 우리 도움이 필요한데요.

뉴스를 봤어요. 몇 주가 지난다고 상황이 바뀔 거라 생각할 순 없다고요. 그때가 되면 몬다타와 인질들은 모두 죽은 후일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이건 시작일 뿐일 거라고요. 널 선택하는 런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딱 한 달 만에, 우리가 이루어 낸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수천 년의 역사가 파괴됐어요.



사령관님, 제가 왜 이걸 착용하는 쪽을 택했는지 아세요? 제가 왜 항공기 실험 프로그램에서 나와 오버워치 요원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는지요?

이걸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면 제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싸워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세상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주제넘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미국 전역에서 옴닉 사태가 터졌을 때를 기억한다. 그게 내가 입대해서 강화 프로그램에 자원한 이유였지.



"군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레예스 사령관과 나에게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그런데 정치와 관리 태만, 자존심 싸움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버워치가 나서야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회가 주어져야 했지."

